제5절 오세아니아권

1. 오세아니아권 출판 시장 개요

2010년 오세아니아 출판 시장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서 32억 8천1백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부터는 회복 속도를 높여, 2015년까지 28억 3천6백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출판 시장은 오세아니아권 출판 시장의 약 86%를 차지하며, 향후 오세아니아권 출판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은 디지털출판 시장이 좌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Ⅲ-29> 오세아니아권 출판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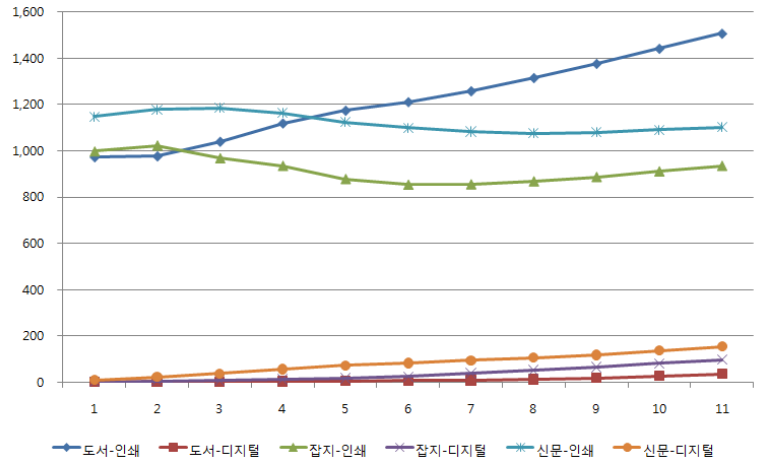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서	소계	975	981	1,044	1,125	1,181	1,219	1,268	1,329	1,396	1,470	1,544	4.8%
	인쇄물	974	978	1,041	1,120	1,175	1,212	1,259	1,316	1,377	1,442	1,507	4.5%
	디지털	1	3	3	5	6	7	9	13	19	28	37	39.5%
잡지	소계	1,000	1,030	978	949	896	879	896	922	954	995	1,035	3.3%
	인쇄물	998	1,024	969	936	879	854	856	869	888	912	936	1.9%
	디지털	2	6	9	13	17	25	40	53	66	83	99	31.5%
신문	소계	1,159	1,201	1,223	1,221	1,197	1,183	1,178	1,182	1,199	1,228	1,258	1.2%
	인쇄물	1,148	1,179	1,185	1,163	1,124	1,099	1,083	1,075	1,080	1,091	1,103	0.1%
	디지털	11	23	38	57	73	84	96	107	119	137	155	13.0%
인쇄물 소계		3,120	3,181	3,195	3,219	3,178	3,165	3,198	3,260	3,345	3,445	3,546	2.3%
디지털 소계		14	32	51	76	97	116	144	173	204	248	290	20.1%
합계		3,134	3,212	3,246	3,295	3,275	3,281	3,342	3,433	3,549	3,693	3,836	3.2%
전년대비성장률			2.5%	1.0%	1.5%	-0.6%	0.2%	1.9%	2.7%	3.4%	4.0%	3.9%	

자료원: PWC(2010);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그림 Ⅲ-43] 오세아니아권 출판 시장 부문별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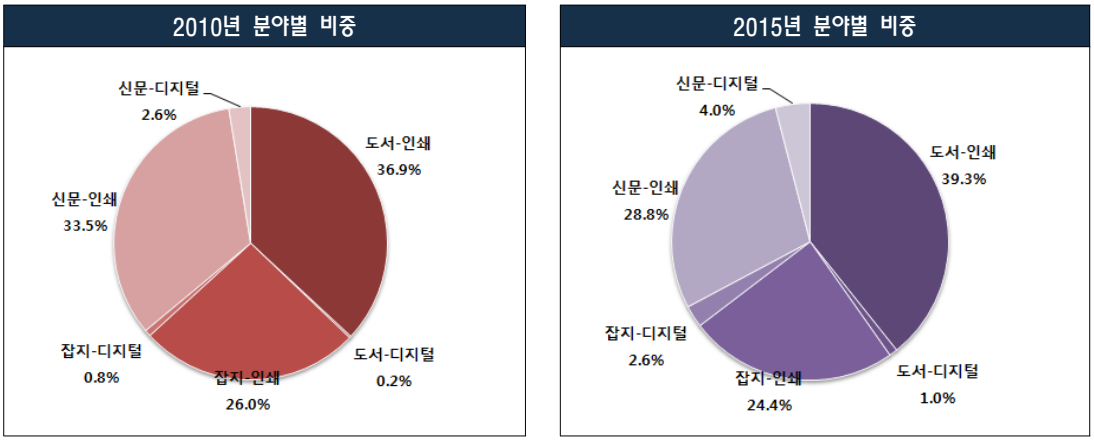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분야별 성장률 추이를 볼 때 오세아니아권 도서 시장은 디지털 시장뿐 아니라 인쇄물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잡지와 신문 시장은 디지털 분야의 성장률은 크지만 인쇄물 시장은 도서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디지털 도서 시장이다.

오세아니아권 출판 시장의 2010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신문과 도서 시장이 각각 약 36%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약 26%를 잡지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5년에는 각 분야별 디지털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인쇄물 비중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5년 디지털 신문 시장은 전체 출판 시장의 4.0%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Ⅲ-44] 2010년과 2015년 오세아니아 출판 시장 분야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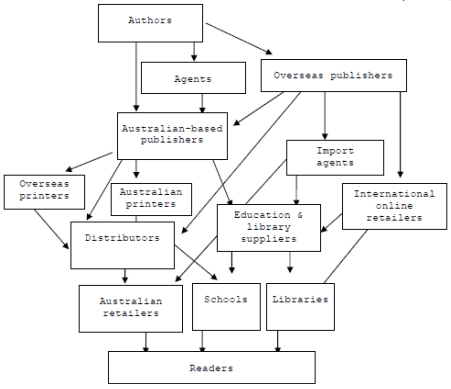
SGS Economics and Planning Pty. Ltd.(2008)에 의하면, 호주의 출판사 수는 234개(2003~04년 기준)로 보고되어 있으며, 수익 규모 기준 상위 20개 출판사가 전체의 77%를 차지한다(판매량 기준 76%). 지역별로는 뉴사우스웨일즈(NSW) 소재 출판사가 전체 도서 판매의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빅토리아주가 43%를 차지한다[1]. 교육부문을 포함한 전체 출판 시장

규모는 15억 6,060만 달러(유럽 시장의 20% 정도에 해당)이며, 호주에서 판매되는 도서 중 수입 도서 비중은 약 40%인데, 이는 1980년대에 60% 이상의 도서가 수입되던 것에 비교할 만한 산업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서 매출 총액은 2000년 이후 하락세에 있다. 출판사 총 매출 중 도서 판매 매출 비중은 약 87%이며, 이 중 14%는 수출에 의한 매출이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은 미국(수출 총액의 1/3)이다. 유통 경로별로는 배급업체 및 서점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77%이며[2],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율이 나머지 23%다.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쇄비(23%)이며, 인건비(19%), 도서수입(14%)이 그 뒤를 잇는다.

현재 호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e-리더는 다음과 같다.

- Bebook (2009. 5 출시. $549)
- Cybook (2009. 5 출시. $499)
- Kindle (2009. 10 출시. 약 $300)
- ECO reader (2009. 10 출시. $449)
- Kobo ereader (2010. 5 출시 $199)
- Stash ereader (2010. 6 출시 $129)

---

1) SGS Economics and Planning Pty. Ltd.(2008)

2) 호주 출판 시장 구조는 다음과 같다(Lee(2010)).